

사회

전남교육청, 전문계고 7곳 집중육성

모집 대상 전국으로 확대 교육예산 지원

경쟁력없는 학교는 도태... 구조개편 본격화

전남지역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63개 특성화고 가운데 일부 학교를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로 지정, 집중지원을 통해 명품 전문계고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순천공고·장성실고·대덕중고·나주공고·목포여상고·전남생명과학고·완도수고 등 7개교를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로 지정했다.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가 되면 도내에서 제한적으로 학생을 뽑는 일반 특성화고와 달리 전국에서 선발, 신입생 확충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지정학교를 늘려나가고 지정학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는 자연스럽게 도태시킴으로써 특성화고의 구조를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장기적으로 현재 63개교인 특성화고를 40여개로 줄일 방침이다.

도교육청 지원 7개교

- 순천공고, 장성실고, 대덕중고, 나주공고, 목포여상고, 완도수고, 전남생명과학고

도교육청이 특성화고 구조개편 사업에 착수한 것은 '무늬만 특성화고'인 전문계고 교육체계로서는 학교·학생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최근 특성화고의 유사·중복학과를 과감히 폐지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를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12개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모두 19개 학과를 개편했

다. 대덕중고의 보통과, 정보처리과는 '말산업 육성과'로, 삼계고의 경영정보과와 보통과는 부사관학과로 개편됐다. 화순실고의 금형디자인·디지털제어전기과·정보전자과 등 3개과는 전자제어과로 통합됐다.

순천 청암고의 영상미디어과는 보건경영과로 학과명칭이 바뀌었고 여천실고의 자연수산과와 자동차과는 자연수산과로 통합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신규 지정과 학과개편은 사실상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의 첫걸음"이라며 오는 "특성화고 체계 개편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꾸준히 학과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도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학생인권조례입법예고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교육청은 7일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총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생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처벌을 금지하는 조문이 수록돼 있다.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시 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교육청은 이후 법제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6분 해질 19시 30분 달뜨기 15시 03분 달지기 00시 1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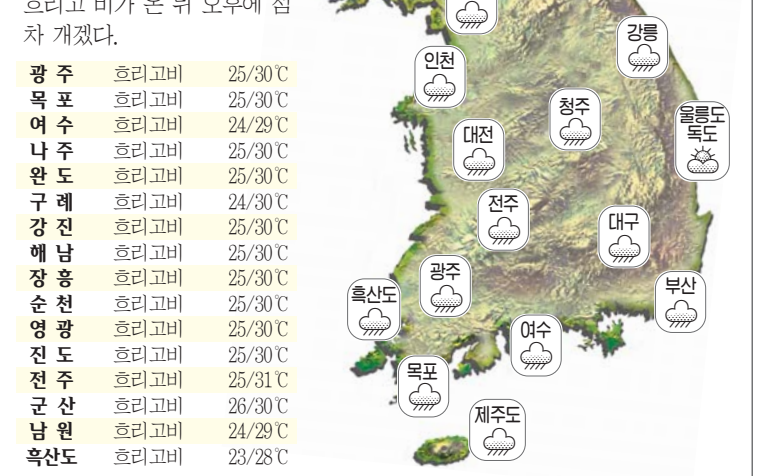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section for '조간날씨' (tidal weather) with high/low tide times.

불법 주정차 "달리는 버스에서 찰칵"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 설치... 내달 1일부터 단속

광주시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정도로 만연해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출·퇴근시간대 즉시 단속, 불법주정차는 나머지 시간대 두 대 연속 촬영 시 단속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

광주시는 7일 "주요 간선도로를 다니는 순환1번, 진월07번, 첨단09번, 봉선37번 4개 노선 10대의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가 설치해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속카메라 장착 시내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노선 내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광주시 단속센터로 전송하게 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평일 오전 7시~9시와 오후 5시30분~7시30분 사이 1회 촬영으로 즉시 단속하고, 불법주정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차량을 제외하고 두 대의 버스에서 촬영된 경우 단속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

차로 위반의 경우 광주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그 외 시간 단속 자료는 해당 자치구에 전송돼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설치장소 이외의 전용차로 침범이나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장착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으로 1일 평균 1500여 건의 불법주정차가 단속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01@

국내 최대 웹하드서 불법물 무차별 '업로드' '위디스크' '파일노리' 실제업주 적발

410만~7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업주가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업로드 전문회사까지 차려 불법 저작물 유통을 주도, 연 4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로드 전문업체를 낀 웹하드 업체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참판장검사 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업로드 전문회사와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양모(40)씨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42)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두 사이트의 바지사장 2명과

해비업로드 김모(여·30)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씨와 직원 4~5명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이 업체를 통해 최소 5만여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켜 지상파 방송사 등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대 총장선거 내달 22일 확정

조선대학교 차기 총장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조선대는 다음 달 22일 14대 총장을 뽑는 본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선대는 또 8일 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26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달 5일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의 자격심사를 거친 후보들은 같은 달 20일 간접 선거인단 투표표를 통해 3명으로 압축되며, 이를 뒤 본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확정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Korea Jijae Health Insurance)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various insurance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eoul, Suncheon, and Mokpo branches.

Large advertisement for KTX (Korea Train Express) tours to Jeju Island. Includes detailed itineraries for 1-day and 2-day tours, pricing tables for different group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rum and Yui Namhae travel agencies.